

# '하나뿐인 내편', 9년만에 꿈의 시청률 달성하나



KBS 2TV 주말드라마 '하나뿐인 내편'(극본 김사경, 연출 홍석구, 제작 DK E&M)의 이장우가 최수종의 누명을 밝힌 가운데, 다시 한 번 자체 최고시청률을 경신했다. 지난 9일 방송된 99,100회에서 각각 37.6%, 42.9%(닐슨코리아 집계 기준)를 기록한 '하나뿐인 내편'은 10일 101,102회 방송에서 44.1%, 49.4%로 4주 연속 자체 최고시청률

기록을 새로 쓰는 것은 물론 9년 만에 '꿈의 시청률' 50% 돌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며 기대감을 급상승시켰다. 지난주 '하나뿐인 내편'에서는 장고래(박성훈 분)에게 간 강수를 해준 뒤 의식불명에 빠졌던 강수일(최수종 분)이 진격 의식을 회복하는 한편, 28년 간 그의 삶을 짓눌렀던 '살인자'라는 오명이 마침내 벗겨지

며 짜릿한 극적 반전을 선사했다. 수일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왕대륙(이장우 분)은 그길로 병원을 찾아 김도란(유이 분)을 위로했다. 비록 이혼의 아픔을 겪은 두 사람이었지만 서로를 향한 애뜻한 마음은 채 줄길 수 없었다. 도란과 함께 수일의 병실을 지키던 대륙은 도란의 요깃거리를 사기

## 49.4%로 4주 연속 자체 최고시청률 기록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고 그곳에서 수일을 꼭 만나야겠다며 간호사와 실랑이를 벌이던 과거 사제업자 양영달(이영석 분)을 마주하며 그의 존재에 강한 의구심을 품었다. 앞서, 황급히 도망치던 그의 뒤를 쫓던 수일의 모습을 목격했던 대륙은 살인사건이 벌어졌던 당시 아무 기억도 나지 않았다는 수일의 말을 곱씹으며 이들 사이에 분명 무언가 있음을 직감했다. 법조계에 있는 자신의 선배에게 수일 사건의 조사를 부탁한 대륙은 범죄에 사용된 칼에 강수일 즉 김영훈과 양영달 두 사람의 지문이 검출되었는데 용의자로는 김영훈만 거론되었는데, 이의 가장 큰 이유가 또 다른 목격자인 대부업체 여직원의 증언이었다는 점 등 관련 내용을 전혀 들었고 수일이 살인죄 누명을 썼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이 같은 사실을 도란에게 전한 대륙은 그녀와 함께 유력한 용의자 양영달의 행방을 백방으로 찾아 나섰다. 이윽고 그와 마주한 대륙은 "사건 자료량 재평가됐다.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다. 그때 그 상황을 제일 잘 아는 분이 아니냐"고 추궁했지만 그의 반응은 여전했다. 흥분을 감추지 못하던 영달은 "김영훈 그 사람이 죽었고 내가 봤다. 네 아버지가 사람을 죽인 살인자다"며 "내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냐. 거짓처럼 산다고 사람 말 무시하는 거냐.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며 화를 냈고 도란은 또다시 좌절의 눈물을 쏟아내 안타까움을 가중시켰다. 이제 그만하자는 도란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수일의 누명을 벗기기 위한 의지를 굽히지 않던 대륙은 대부업체 여직원을 찾아 나섰고 그녀가 영달과 결혼했지만 이미 사망했으며 둘 사이에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역시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어, 영달 아들의 장례식장을 찾은 대륙은 영정사진 하나만 달랑 놓은 슬슬한 빈소에서 슬픔에 잠겨 있던 영달을 말없이 위로했고 이는 곧 영달의 심경변화를 이끌어내는 구심점으로 작용했다. 경찰서 앞에서 대륙과 마주한 영

달은 "내가 범인 맞다. 김영훈씨는 그 사람 죽이지 않았다"며 "너무 무서웠다. 내 자식이 살인자의 자식으로 살게 하기 싫어서 그랬다. 정말 죄송하고 잘못했다"고 애써 변명했다. 그는 이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사람 노릇 한번 하려고 한다. 내대신 김영훈씨한테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꼭 전해 달라"고 발걸음을 옮겼다. 수일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그의 행동에 분노가 치밀어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는 노릇이지만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지며 '살인자'라는 오명을 벗게 된 그의 삶에 새로운 희망이 돌아나게 된 상황. 수일의 어두웠던 과거로 인해 비롯된 갈등과 대립, 아픔과 시련의 골짜기 화해와 치유로 병합되며 다시금 모든 이들이 웃음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마지막까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폭풍전개로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는 '하나뿐인 내편'은 28년 만에 나타난 친부로 인해 인생이 꼬여버린 한 여자와 정체를 숨겨두려 했던 그녀의 아버지가 '세상 단 하나뿐인 내편'을 만나며 삶의 희망을 되찾아가는 이야기로 매주 토, 일 저녁 7시 55분 방송된다.

## 2049 꼭 잡은 '열혈사제', 지상파 드라마 새 역사 썼다



'열혈사제' 2049 시청률 9.4%를 기록, 자체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2049 시청률은 광고 시청의 핵심 지표이기에 2049 시청률의 매회 상승은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또한 타사 경쟁 드라마의 2049 시청률을 3배 상회하는 기록으로, 지상파 드라마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3월 9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열혈사제'(극본 박재범/연출 이명우) 15회는 2049 타깃 시청률 7.3%, 수도권 시청률 14.6%, 전국 시청률 12.5%를 기록했고, 16회는 2049 타깃 시청률 9.4%, 수도권 시청률 18.3%, 전국 시청률 16.1%를 기록했다. 특히 2049 시청률은 지난주 최고치를 0.7% 포인트나 상승시키며, 젊은 세대의 열렬한 지지를 입증했다.

'열혈사제'는 김남길, 김성균, 이혜리 등 주, 조연 기릴 것 없는 배우들의 캐리커 플레어가 빛나며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여기에 사회 풍자를 담아낸 블랙 코미디, 웃음이 나지 않을 수 없는 기막힌 패러디, 화끈한 액션들이 맛깔스럽게 더해져, '열혈사제'만의 독특한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날 방송의 최고 시청률 20.9%를 장식한 장면은 김해일(김남길 분), 구대영(김성균 분), 서승아(김새록 분)가 공조해, 악당 황철범(고준 분)의 무리들과 격렬한 격투를 벌이는 장면이다. 악당들을 차례차례 쓰러뜨리는 김해일의 거침없는 액션을 시작으로, 서승아를 공격하는 장룡(음문석 분)을 향해 로켓 박치기를 하는 구대영의 모습까지, 멋진 콤비를 오가는 액션신이 눈 돌릴 틈 없이 펼쳐져, 시청자들을 환호하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스펀지처럼 미운정인 김해일과 구대영의 브로맨스도 달궜다. 이날 구대영은 열혈결계 김해일을 위기에서 구해냈다. 김해일을 폭력으로 고발하려는 사이비교주 기용문(이문식 분)의 계락을 온몸을 던져 막아낸 것 구대영은 김해일에게 꿈을 사리라는 조언을 했고, 김해일은 이러한 구대영의 진심을 모른 채 디스를 해 그

를 서운하게 했다. 이후 김해일은 구대영에게 막말을 한 게 마음이 쓰였다. 수사 의지는 전혀 없고 방해만 하는 구대영이 미웠지만 김해일은 마음을 열고 구대영에게 다가갔다. 우물쭈물 사과를 하는 김해일과, 새침하게 밝히는 구대영의 모습은 웃음을 자아냈다. 그러나 급 조성된 훈훈한 분위기는

온데 간데 없이, 두 남자는 또 다시 티격태격 다투며 미운 정을 쌓아나갔다. 이를 가만히 보고 있을 황철범이 아니었다. 황철범은 김해일의 수사를 제대로 방해하지 않는다면, 구대영을 협박했다. 과거 구대영은 황철범 패거리에 의해 파트너를 잃은 경험이 있었고, 그 때부터 무기력하고 비굴한 경찰이 되어버린 것. 현실과 암시 사이에서 갈등하는 구대영의 모습은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 김해일과 구대영의 모습이 향후 이들의 진짜 공조를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다. 구대영은 예전의 용기와 정의를 잃어 버렸지만 '우리 편'이 될 수 있을까. 김해일은 이러한 구대영의 차가워진 마음을 데워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 환상의 타키타카 호흡을 자랑하는 김남길, 김성균의 케미스트리도 극이 진행될수록 더욱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어 시청

자들의 기대가 높아진다. 그런가 하면 지방으로 좌천된 육망 검사 박경선(이혜리 분)은 결국 강부장(김형욱 분)에게 무릎 꿇고 충성을 맹세했다. 강부장은 박경선을 '구담구 카르텔'의 식구로 데려오려는 테스트를 하며, 박경선을 길들였었다. 더욱 악착같이 출세 의지를 다진 박경선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김해일의 수사에 긴장감을 불어넣으며 향후 전개를 궁금하게 만들었다.

## '대탈출2' 역대급 하이라이트 영상 공개 '폭발적 반응'



tvN '대탈출2'가 역대급 하이라이트 영상을 공개해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대탈출2'는 반전을 거듭하는 드라마틱한 전개와 기상천외한 트

릭으로 업그레이드된 초대형 밀실, 그리고 보다 단단해진 팀워크를 통해 '프로 탈출러'로 레벨업한 멤버들이 펼쳐는 밀실 어드벤처 '저지니 어스', '소사이어티 게임' 등 뇌섹 예능의 전성기를 이끈 정중연PD와 지난 시즌 밀실 탈출의 짜릿함을 안겼던 멤버 강호동, 김중민, 김동현, 신동, 유병재, 피오(블라비)가 더 강력해진 재미를 장착해 오는 3월 17일 오후 10시 40분 시즌2로 돌아온다. 약 3분 가량의 하이라이트 영상에는 '대탈출' 시즌2 첫 촬영 하이라이트 장면이 담겨 있어 시즌2 방송을 기다렸던 시청자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다.

영상 초반에는 사전 모임에서 시즌2의 가장 확연히 달라진 점으로 탈출 실패 가능성과 중도 탈락 가능성을 설명해 출연자들을 긴장시켰다. 이어 공개된 첫 촬영지 포천의 밀실 세트장은 지난 시즌에 비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스케일과 퀄리티를 자랑해 시청자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지난 시즌 활약을 연상케 하는 멤버들의 캐릭터도 옛모습 그대로 감과 공감을 더하고 있다. 연에게 전하장사 강호동은 이번에도 비밀번호 대신 힘을 사용해 캐비닛을 여는가 하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테이블과 의자로 가로막힌 길을 힘으로 헤치고 나아가는 장면을 보여주며 탈출 폭격기로서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시즌 첫 탈출의 포문을 열었던 '김발견' 김중민은 이번 첫 탈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지 궁금

증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김호동'이라는 별칭을 얻은 김동현은 지난 시즌 시체 모형을 보고 식겁했던 클립 영상을 통해 '겁'의 정의를 새로 썼다는 평을 받으며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 세상에 없던 예능 캐릭터를 보여준 바 있어 기대감을 주고 있다. 또한 신동은 멤버들이 막다른 벽에 다다를 때마다 기지를 발휘, 뇌섹의 매력으로 탈출러들의 환호성을 자아냈으며, 유병재는 탈출의 단서를 조리있게 설명하고 게임에 담긴 스토리를 해석하는 등 신동과 함께 가장 활발한 토론을 이어왔다. 예능 블루칩에서 예능 대세로 거듭난 피오는 첫 촬영부터 탈출에 완벽 적응, 지난 시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업그레이드 기량을 펼칠 전망이다. 한편 어딘지 모르게 어슬픈 듯 하면서도 단단한 팀워크를 통해서 는 여전히 폭소와 함께 탈출의 짜릿한 감동을 안겨주고 있어 시즌2의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 오늘의 운세 2019년 3월 12일 화요일 (음력 2월 6일)



▶**운세** 열심히 노력하고 인내심도 강하지만 결정적일 때 남보다 늦는 것이 단점이다. 건축업 종사자는 호황기를 맞이했지만 이성관계로 구설이 따르니 조심하라. 기, 오, 보 성씨 아직 늦지 않았으니 가정 지키는 것이 최우선임을 알라.



▶**운세** 하고 싶은 일들은 많고 포부도 크지만 희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힘겹다. 자존심이 강하지만 때로는 융통성이 필요한 때임을 알라. 자기가 부린 것은 남에게 돌리지 말고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기, 보, 툄 성씨 남에게 위임하면 관계 있다.



▶**운세** 노력에 비해 결과는 작지만 투자하는 마음으로 현 상태를 고수한다면 보람을 찾을 수 있다. 그래도 밀 빠진 독에 물 붓는 금전운이다. 2, 8, 11월생 애정불만으로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은 좋으나 가정은 꼭 지키고 북서쪽 사람은 피함이 좋을 듯.



▶**운세** 현재의 상황을 잘 극복하면서 앞으로의 일들을 관망하며 근신하는 것도 내일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다. 사랑에도 강약이 있다. 그 리듬을 타야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 7, 9, 12월생 원성이, 돼지띠와 함께하면 길하다.



▶**운세** 남들은 행복한 가정에서 웃음꽃이 피지만 내 마음에는 답답함과 그리움 뿐이다. 한 쪽을 선택할 운명이다. 지혜와 슬기롭게 내가 설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는 중요한 날이다. 기, 사, 툄 성씨 건강 주의. 신병으로 고통당할 수.



▶**운세** 결단성이 필요한 때. 추진력과 안일 계획이 설정되어야 한다. 망설이다가 때를 놓치니 고독과 눈물뿐이구나. 당신 한 사람으로 여러 명이 방황하고 있다. 부족한 원인을 재점검해서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자세가 필요.



▶**운세** 자신만만하다가도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긴다. 금전관계나 이성 문제로 구설수가 있다.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처신하라. 잘못 시작한 애정문제가 이제 짐만 되어 혼자 살아가기 힘들다. 원성이, 돼지, 범띠가 힘이 되어 줄 듯.



▶**운세** 친구 간에 동업하지 말고 보증도 서지마라. 처음은 우정으로 시작되지만 결국에는 혼자서 채우까지 짊어지게 되고 친구까지 잃게 되니 유념할 것. 기, 툄, 오 성씨 사업에도 지지고 사랑에도 지친 마음 잡을 길 없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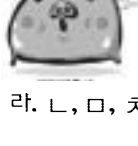
▶**운세** 화술에 능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지만 끈기가 없어서 끝맺음이 약한 것이 단점이다. 또한 있다면 실증을 잘 내는 것 또한 고쳐라. 3, 8, 10월생 자기주장만 내세우고 고집 부리는 것을 조금 꺾어야 할 때. 부부끼리 의논하면 가정에 웃음꽃 필 듯.



▶**운세** 생활 리듬이 깨진다면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어려울수록 침착하게 대처하라. 생각은 크고 행함은 작아지니 현 위치에서 도피하고 싶지만 지혜를 모아 용기롭게 전진하라. 3, 5, 9월생 할 일은 많고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주저 말고 일어서라.



▶**운세**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좋으나 남의 것을 모방한다면 삼가라. 처음은 포부가 크지만 결국은 뒤쳐진다. 확고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때 서서히 운이 열릴 듯. 툄, 오, 툄 성씨 서두르다보면 허점이 보인다.



▶**운세** 불의를 보고서 참지 못하는 성품은 좋지만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손해뿐이다. 다른 사람의 사정을 봐주다가 자신은 울상이 될 듯. 인정에 끌리지 말고 자기 일에 열중하라. 기, 오, 툄 성씨 사랑하는 사람과 오후를 함께함이 어떨까.